

# 1차 교섭 불발... 파업 장기화 조짐

## 화물연대 파업 사흘째... 지역 곳곳 대규모 피해 우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돌입 사흘째인 27일 정부와 화물연대의 1차 교섭이 성과없이 끝나면서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부분적인 물류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파업 장기화로 인한 대규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와 광주시, 전남도, 여수 광양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과천정부청사 별관 대회의실에서 교섭을 진행했지만 양측의 입장차이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화물연대는 ▲운송료 30% 인상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면세유 지급 ▲표준임제법 제재화 ▲화물노동자 권리보호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쟁점의 하나인 운송료의 경우 운송업체에서는 4~5% 인상을 제

시하고 있어 견해를 좁히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택시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양측은 28일 오전 재교섭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지역 일부 산업체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재교섭마저 결렬된다면 피해 규모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20여명의 노조원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전남에서 가장 피해가 심각한 광양항의 반출입량은 2684TEU(1TEU는 20ft 컨테이너 1대)로 평시(7034TEU) 대비 35% 수준에 그쳤다.

여수산단도 여수지회 소속 340여명이 운송을 거부하면서 하루 평균 1900대가 드나들던 운송대수가 500대 감소한 1400대 수준으로 줄었다. 이로 인해 8000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여수시는 보고 있다.

한화케미칼의 경우는 파업 직후부터 이틀간 물량 출하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는 아직까지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 금호타이어, 삼성전자 광주공장 등에서 운송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날 전국 주요 항만에서 운송거부 차량이 18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가 27일 오전 광주시청 앞 미관광장에서 8시간 노동쟁취, 임대료 체불 근절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경찰, 비조합원 차량 파손·작업방해 수사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비조합원 화물차량 파손 및 작업방해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장성경찰에 따르면 27일 잔디를 싣던 비조합원 화물차량의 작업을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등 16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11시50분께 장성 삼서면과 동화면에서 잔디를 화물차에 싣던 비조합원의 작업을 방해한 혐의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6시40분께 광

주시 북구 신동동 참단2지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자재를 싣고 왔던 짐을 부리고 나오던 25t 트레일러 차량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 3명이 돌멩이 등을 던져 차량 조수석 쪽 유리창이 파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손 정도는 경미해 운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차량 운전자는 타지역에 주

소를 둔 비조합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화물차 운전자는 “짐을 풀고 나오는데 남자들이 뛰어 들어 진행을 방해해 실랑이를 벌였고, 누군가 갑자기 돌멩이 등을 던지고 달아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의 진술과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화물연대 총파업과의 연관성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건설기계노조 파업 화정주공 공사 차질

화물연대에 이어 건설기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광주·전남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화정주공건축 현장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공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는 27일 오전 9시 광주시청 앞 미관광장에서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갖고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8시간 노동 정착 ▲체류·어음 근절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 의무 작성 ▲불법 단건 하도급 업자 퇴출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오전 2015 광주U대회 선수촌으로 사용될 화정주공아파트 철거현장의 건설기계노조원 50여명이 파업에 들어가 26대의 대형화물차가 운행을 멈추면서 폐기를 처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더운 날씨 지속 주말부터 장마권

1일까지 최고 30mm 비

광주·전남지역은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장마권에 접어들겠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장마전선이 활성화되면서 29일 밤 늦게부터 비가 시작돼 다음달 1일까지 비가 오다가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부터 다음달 1일 사이 예상강수량은 10~30mm 안팎으로 예상된다.

또 다음달 2일 장마전선이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3~4일 제주도 인근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0분 / 해질 19시 51분 / 달돋이 13시 50분 / 달질 00시 23분

낮엔 더워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구분	구름량	기온
광주	구름많음	20/32℃
목포	구름많음	20/29℃
여수	구름많음	20/27℃
나주	구름많음	19/32℃
완도	구름많음	19/28℃
구례	구름많음	19/28℃
강진	구름많음	19/29℃
해남	구름많음	20/30℃
장흥	구름많음	18/28℃
순천	구름많음	19/30℃
영광	구름많음	19/30℃
진도	구름많음	18/28℃
전주	구름많음	19/31℃
군산	구름많음	19/30℃
남원	구름많음	17/30℃
홍산도	구름많음	19/26℃

〈오전〉 바다 풍향 풍속 파고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5m	1.0~2.0m	경고	높음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5~2.5m	2.0~4.0m			

〈오후〉 바다 풍향 풍속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5m	목포	08:09	01:16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2.0m	여수	21:04	13:52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5~2.5m		03:05	09:23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5~3.0m		16:17	22:2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9(금)	30(토)	7/1(일)	2(월)	3(화)	4(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21/30	22/26	22/26	22/27	23/27	23/27

화해와 협력은 든든한 안보 속에 가능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할인 봉사 OFF SALE 30%

www.kjhr.com

기간: 2012년 3월 15일~8월 31일 독일보청기 정품만 사용합니다.

본점 062)227-9940 / 총장점 062)227-9970 / 목포점 061)262-9200 / 장흥점 080)222-9975 / 서울점 02)765-9940 / 순천점 061)752-9940

전남영암 **하누리병원 경매물건**

■사건번호 : 2010타경 19601(물건번호 1)

■입찰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01호 법정

■법원최초 법사가 : 9,518,275,000원

■부동산위치 :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42-7외 1필지 (전남방직 입구대로변으로 접근성이 용이)

■물건종별 : 의료시설

■토지면적 : 9,517㎡

■건물면적 : 7,305.36㎡ (지하 1층, 지상 3층)

■입찰진행내용

구분	입찰기일	최저경매가격	결과
1차	2012. 04. 30	9,518,275,000원	유찰
2차	2012. 06. 11	6,662,793,000원	유찰
3차	2012. 07. 23	5,330,234,000원	

■2010년 신축건물 상대 매우 양호

문의 :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강훈열 국장 H.P : 010-2498-0420

비세는 아파트옥상 · 슬라브 주택 · 빌라 · 공장의 **희소식**

www.phjibung.com

고질적인 슬라브지붕 누수 방수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가?

■공정직영

■완벽한 시공, 확실한 AS보장

■전국최대시공팀 직접운영

■시공을 원하시는 분!

**출장견적 무료!!**

시공전 시공후

국내최초 특허출원번호 69701호

**슬라브 방수 강판 시공법 개발**

1. 비가 한방울도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2. 겨울엔 연료가 최소 30% 정도 절감된다.

3.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하다.

4. 슬라브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방수는 최소 50년 이상간다.

5. 창독대, 발래 건조대로 사용할 수 있다.

6. 고추는 땅에서 말리는 것보다 3~4배 더 잘말린다.

7. 화학적인 방수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강판과 목재로만 완벽하게 방수 시공한다.

8. 강판바닥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9. 반영구적이다.

10. 슬라브 배수구를 100미터 거리 시공해서 물빠짐이 원할하다.

※ 상기 특허 등록 및 이미지 도용시 가법통보하여 법적 고발조치 할수 있다.

**단한번의 공사로 40~50년 보장하는 특수 방수 시스템**

2차에 우리측사의 온도가 33도였는데 이정도 온도라면 집안에서는 못견딜정도 인데 지금은 시원하고 선풍기 없이도 생활해도 배수도 1000리터로 새로 넣었기 때문에 아무리 쪽우가 봐도 물빠짐엔 걱정이 없습니다. - 황금국 -

방수를 한 것이 반겨져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방수처리도 완벽하게 되고 슬라브 지붕도 그대로 보존되는 이중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반 영구적이라 시공을 했을때 역시 슬라브 지붕새는다는 강판이 최고입니다. - 임명훈 -

슬라브 강판을 한지 4년이 되었는데도 색도 안 변하고 여름에 들어서 일하고 돌아오면 첫째, 선선하니 시원하고 선풍기 안들어도 되고 겨울에는 외출이 덜하고 연료비도 기름 두 드림 넣어 놓으면 전보다 3~4달 넘어서 연료비가 절감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 성순용 -

한농 **칼라강판 지붕개량** 문의 061)335-8842 / 010-4024-4005